

## 진정한 하나의 터—교회의 터

성경: 엡 4:3, 요 17:6, 11, 14-24, 16:13, 스후 4:2-6, 계 1:11-12

I. 교회의 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‘터’라는 단어는 건축물의 기초와 같은, 그런 기초를 의미하지 않는다. 이 단어는 건축물의 기초가 놓이는 대지 같은, 대지라는 의미를 갖는다.

II. 신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, 진정한 하나의 터인 교회의 터는 세 가지 중대한 요소로 구성된다.

A. 교회의 터를 구성하는 첫째 요소는 ‘그 영의 하나’라고 불리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이다—엡 4:3.

1. 이 하나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하나이다. 이 하나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이 연합된 하나이다.

2. 이 하나는 아버지의 인격을 가리키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으며, 이러한 아버지의 이름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—요 17:6, 11.

a.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지켜진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에 의해 지켜지는 것인데, 그것은 오직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아버지의 생명을 소유한 이들만이 아버지의 이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b. 이 방면의 하나에서,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난 믿는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, 곧 아버지 자신을 그들의 하나의 요인으로 누린다.

3. 이 하나는 진리인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—요 17:14-21.

a. 거룩하게 되는 것은(엡 5:26, 살전 5:23) 위치적으로뿐 아니라(마 23:17, 19) 기질적으로(롬 6:19, 22) 세상과 세상의 강탈에서 분별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만 속하는 것이다.

b.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은 믿는 이들 안에서 운행하여 그들을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, 또한 세상의 분열의 악(요 17:15)에서 분별한다.

4. 이 하나는 궁극적으로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신성한 영광 안에 있다—요 17:22-24.

a.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주셨는데, 이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(요 17:2, 벡후 1:4)을 지닌 아들의 자격을 얻어 아들의 충만(요 1:16) 안에서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표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.

b. 이 방면의 하나에서, 믿는 이들은 그들의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고,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의 온전하게 된 하나의 요인으로 누려, 단체적이고 건축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(요 17:22).

5. 그러한 하나가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이 생명의 영에 의해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거듭났을 때, 그들의 영 안으로 분배되었다. 이 하나가 교회 터의 기본 요소가 되었다.

B. 교회 터의 둘째 요소는 지방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지방이라는 유일한 터이다.

1. 신약은 우주적인 교회, 곧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들인 모든 지방 교회들이 각 도시에 위치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분명한 그림을 제시한다.

2.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(행 8:1), 안디옥에 있는 교회(행 13:1),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(롬 16:1), 고린도에 있는 교회(고전 1:2), 그리고 일곱 도시에 있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(계 1:4, 11)를 본다.

3. 각 도시는 한 교회가 존재하는 경계로서 그 교회의 지방적인 터이다. 지방이라는

이 유일한 터는 침례교, 장로교, 루터교, 감리교, 감독교(성공회) 등의 분열적인 교파들이 나누어진 방식처럼 교회가 서로 다른 터들인 다양한 많은 문제들로 인해 분열되지 않도록 보존해 준다.

4. 요한계시록을 일곱 교회들에게 보낸 것은 이 책을 일곱 도시들에 보낸 것과 동일하다—1:11.

a. 이것은 초기의 교회생활의 실행이 한 도시에 한 교회를 갖는 것, 한 도시에는 오직 한 교회만 있어야 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. 어떤 도시에도 하나를 초과하는 교회가 없었다. 이것이 길이나 면(도시보다 작은 행정 단위)이 아닌, 도시를 단위로 하는 지방 교회이다.

b. 한 지방 교회의 관할 지역은 그 교회가 위치한 도시 전체를 포함한다. 즉 그 도시의 경계보다 더 크거나 더 작아서는 안 된다. 그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그 한 도시 안에서 하나의 유일한 지방 교회를 구성해야 한다.

C. 교회 터의 셋째 요소는 하나(eness)의 영의 실재로서, 한 지방 교회의 유일한 지방의 터 위에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를 표현한다.

1. 교회 터의 셋째 요소는 신성한 삼일성의 살아 있는 실재이신 그 영의 실재이다. 바로 이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실지로 있게 되고 살아 있게 된다—요일 5:6, 요 16:13.

a.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있는 등잔대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(출 25:31-37), 스가랴서에 있는 등잔대는 그 영을 상징하며(슌 4:2-6), 요한계시록에 있는 등잔대들은 교회들을 상징한다(계 1:11-12).

b.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금 등잔대인 각 지방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그 영의 복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.

c. 우리는 우리를 금 등잔대인 교회라고 말할 때, 우리가 반드시 완전히 그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.

d. 교회는 그 영의 복사판이기 때문에, 우리는 “영이 없으면 교회가 없고, 영이 더 많으면 교회가 더 많다.”라고 말할 수 있다.

2. 또한 바로 이 영을 통해서 지방이라는 터가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적용된다. 더욱이 바로 이 영에 의해 교회의 진정한 터가 삼일 하나님과 이어진다—엡 4:3-6.

III. 위에서 정의한 교회의 터는 실행에 있어서 교회의 진정한 하나를 지방적으로 또한 우주적으로 어떤 분열도 없이 지켜준다(엡 4:3). 이것만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지체들 가운데 있는 분열과 혼돈의 상황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.

IV. 위에서 정의한 교회의 터는 또한 모든 믿는 이들의 진정하고 합당한 교통의 기반이다. 이 교통은 신성한 계시 안에서 ‘사도들의 교통’(행 2:42)이라고 불리며,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하는 교통이다(요일 1:1-3). 이것이 지방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교통이다.

A. 오늘날 기독교의 수많은 분열적인 터들로 인하여, 그리스도의 지체들 가운데 교통 또한 수많은 분열적인 교통으로 나누어졌다. 이 모든 분열적인 교통에서 구원되는 길은 교회의 유일하고 진정하며 합당한 터를 취하고 지키는 것이다.

B. 이것은 교리나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.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며 실행적으로 필요한 것이다.